

1991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한명숙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20-0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전화 (02) 313-1060
FAX/392-7844
값/500원

함께 가는 여성

1991

11

통권 51호



등급판정관의 하얀 손 밑에서 낱알들을 고이 바치고 선 마디 거친 저 손은 값진 땀 흘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키우고 있건만 정부는 무슨 심사로 그 손을 없수이 하는가. 아이들 연필값까지 두자리 수로 뛰어오른 마당에 쌀값만 7%인상에 그것도 전량수매가 아닌 8백5십만섬 한정수매. 아이울음 그치지 오래된 우리 농촌에 이젠 참새소리마저 그쳐 가을들판이 황량하다.

2 이달의 편지

부딪쳐 고쳐나가는 참 아름다움을

3 모니터팀 활동보고/여성잡지 광고에 나타난 여성상

꾸미고 다듬어야 사랑받는 여성인가

4-7 특집/골프장 폐해. 그 진단

망국으로 치닫는 골프공화국의 '놀이'정책

8 참가기/91 여성주간행사

'미연이'를 통한 나의 재발견

신나는 한판. 일하는 여성들의 한마당

9 실며 생각하며/열병

다들이 방망이/홍옥인들 전사했으랴

10-11 이 사건을 보는 눈/ '김중배사건'을 짚어본다

권력을 넘어 드디어 자본과의 싸움으로

12-13 '함께가는생협'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가는 생협입니다

14 알고 계십니까/

역시 김치는 우리네 밥상의 최고

15 '함께가는생협' 품목소개

16 게시판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부딪쳐 고쳐나가는 참 아름다움을...



이경숙/여성민우회 부회장

무언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낯설어지면서
깍뎀기만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화된 것입니다.
이런 무딘 감각에
젖어 있다면
남성들의 눈요기감인
미인대회를 보고도
분노의 감정이
치솟을 까닭이 없겠지요

창가의 나뭇잎새마다 늦가을빛이 완연하고, 소매깃의 찬바람이 저울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을빛을 가슴에 색달리 담아보려던 젊은 시절은 어느덧 빛바랜 옛모습이 된지 오래입니다. 감상에 젖기에는 너무나 바쁜 지금, 겨울 날 준비로 손끝을 빨리 놀리는 모습에서 상큼한 봄나물 내음보다는 구수한 된장맛 같다는 웅골진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버스 토론값을 아끼기 위해 딸네집까지 30여분을 걸어오시고도 '건강을 위해 걷는다'는 친정아버지의 생활을 백분지 일이라도 흉내내기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모습이 화장품을 찍어 바르지 않았지만 생활인의 참 아름다움이라 스스로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환갑이 가까와 젖어도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옆집 아주머니에게서도, '함께 가는 생협'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새벽 일찍 일하신다는 홍성 생산자분들에게서도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움은 살림살이가 잘 풀려나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바구니를 들고 올 수 있을 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때, 그 빛을 더 발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입니까. 지난번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김종위의원은 여성이란 본능적으로 외모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살리는 여성정책을 입안하라고 충고하였더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의원에게 남성의 본능도 외모를 가꾸는데 있는지 되묻고 싶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접한 여성계의 거센 항의에 정작 국정감사를 받은 정무장관실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진지하게 진행된 국정감사였다. 저절성 발언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여성비하의 발언이 분명 있었는데도 저절성 발언이 없다고 두둔한 여성전담기구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러면 김의원만 잘못이 있을까요. 중요하고 심각한 자리에서 조차 '여성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 농담조로 해도 아무 탈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게다가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여성들의 잘못도 분명 한 몫 있다고 봅니다.

6공들어 부활된 국정감사, 특히 올해는 통합야당의 공식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정감사라 6공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총평가가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여 결국 반쪽 국감의 파행으로 막을 내리고, 언론들은 '구태 의연'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여 정치기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때 우리는 두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림살이하면서 중간중간 나는 짜투리 시간에 우리는 신문보다 텔레비전을 가까이 했고, 텔레비전 토론 프로보다 드라마나 쇼 프로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낯설어지면서 깍뎀기만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화된 것입니다. 이런 무딘 감각에 젖어 있다면 남성들의 눈요기감인 미인대회를 보고도 분노의 감정이 치솟을 까닭이 없겠지요. 가치관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도 눈앞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아줌마부대'가 되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정치지도자들처럼 부당한 현실을 고쳐나가기 보다 피해가는 고상함(?)으로 민주사회를 뒷걸음질치게 하지 않았는지요.

무감각, 무가치관, 지나친 고상함이 부패랑 현상으로 나타나 김의원을 대표로 뽑아 그 값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국정감사가 연례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정치지도자의 일그러진 여성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반적인 삶과 연관된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가고, 정부의 집행능력을 감시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트러진 자세를 곧추 세우고 여성의 본능이 외모만을 가꾸는 데에 있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여성의 일그러진 아름다움은 제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꾸미고 다듬어야 사랑받는 여성인가

김연순/여성민우회 회원
상계동 모니터팀

엄청난 광고량... 책의 절반에 이르기다

'품위있는 고급 여성지,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 센스있는 여성 짝게 사는 주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잡지들의 광고문구이다. 품위있고 우아하면서 남자에게는 사랑을 받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비결이 잔뜩 들어 있다. 이 잡지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광고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1/4, 1/3이며 여기에 준광고라 할 수 있는 패션과 신상품 소개를 합친다면 1/2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광고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당당한 한 주체임을 여자는 그를 보조하는데 불과한 수동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복의 경우 정장차림의 남자가 정중하고 의젓하게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데 반해 여자는 정장차림으로 시선은 다소곳이 아래를 향하거나 계승조려한 눈과 약간 벌린 입, 그리고 몸을 비튼 자세로 서 있다. 속옷 광고도 마찬가지다. 속옷만 걸쳤음에도 남자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여자는 '눈부시게 빛나는 네 모습에 떨리는 전율(?)을 느낀다' '첫 순간 눈은 가슴을 향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요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성화장품 광고의 경우 40대 남자가 연륜과 경륜을 자랑하며 중후하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는데, 여성의 경우 젊은 여자가 웃을 땀은 채 흰 천만 두르고 엎드려 있는 사진을 나란히 대비해 실고 있다. 샴푸와 무스의 광고도 여성의 가슴이 과대 노출된 채 커다랗게 확대한 사진을, 아기용 크림 광고도 아기는 물론 엄마까지

도 벗은 모습의 화보를 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출연기관인 ○○공사에

서도 심야전력 이용을 권장하는 4개의 화보 중 2개가 여성의 목욕장면인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제화에서는 나체의 여자가 여러 컬러의 구두를 양손으로 안아 가슴을 가리고 있는데 구두를 사느라고 하나씩 집어낸다면 결국 이 여성의 젖가슴은 모두 드러나 보이리라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모두 선전하는 제품과는 관계없이 벗은 여성의 신체를 눈요기감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한편 남녀의 역할분담으로 성차별을 드러내는 내용도 있다. 2생명과 2우유는 지구를 떠안은 남자아이를 내세워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은 바로 남이라는 것을 은밀히 내포하고 있으며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라는 문구와 함께 당당하게 서 있는 남아의 뒷모

제품과 관계없이 눈요기감이 되는 여성

습을 화보로 실고 있다. 2식당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은 주부라면서도 정면에는 남편을, 그 주위에 아내와 아이들이 둘러 앉은 사진을 실고 있는 것이다.

매번 바뀌는 인테리어란에서는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찻잔과 생소한 과일, 그 위를 그윽히 비추고 있는 값비싼 조명기구, 번쩍이는 주방기구와 고급 원목가구 등을 소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입품이다.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외국인 모델도 아동복, 성인복, 잡화에



아내는 현모양처. 다른 여성들은 눈요기감의 마돈나이길 바라는 우리 사회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여성잡지 광고에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50여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의

남성중심의 화보로 성차별을 조장해

대부분은 외모는 출중하고 성적매력이 듬뿍 넘치는 육감적인 여성이면서 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가족에게는 희생적인 여성, 그리고 수입식품과 수입가구로 집안을 가득 채우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남자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여성, 자신이 출세하기보다는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성, 정신보다는 육체가 아름다운 여성, 이렇듯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상품으로 그려내는 데는 그 상품을 생산해 이익을 보는 자본가들과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비로소 아름다워지며 이어 자신도 기득권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여성의 기대심리가 작용한다.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해 사용해야만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사회통념을 만들어내고 또 여성들은 이에 편승하게 되어 여성의 상품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여성의 42%가 취업여성, 이들의 60%가 기혼여성이며, 건강한 삶을 모색하려는 전업주부들도 많은데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도외시키는 이상의 광고들은 올바른 사고를 가진 많은 여성들로부터 계속 외면당할 것임에 틀림없다. *

망국으로 치닫는



여기는 과연 천당인가? 극락인가? 콩나물 값 몇백원을 깎기에 급급한 우리 사회 70%의 서민들이 과연 여기서 뛰놀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서 '골프대중화 정책'이란 말인가

보통 대통령과 베섹메무초 그리고 골프대중화

보통사람을 수반으로 한 6공화국은 5공화국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느라 여러가지 애를 썼다. 우선은 보통대통령이 베섹메무초를 부르고 그 영부인은 몸조심을 했으며 회의탁자도 원탁으로 꾸몄다. 그러더니 급기야 보통사람도 골프 칠 권리가 있다며 골프대중화 정책을 시달렸다. 이름도 요상한 골프대중화란 골프장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그 허가권을 각 시도도에 넘긴것을 말한다. 골프대중화-저 푸른 초원위에 돌아아빠 골프치네. 마누라도 함께 가세 김밥을 싸들고서..... 바야흐로 이런 꿈이 이루어질 판인것 같았다. 그래서 그 골프장이란 댐 가보았다.

그 푸른 구릉은 높도 않고 낮도않고 카우보이 영화에서 언젠가 본 듯 한데 그넓은 땅덩이를 온갖 멋진 나무들로 울타리를 쳐대고 그 아래 오솔길엔 향기로 온 나무의자 기묘한 식물들이 줄줄이 늘어섰고 가시는 걸음걸음 밟으시기 좋으라고 아랍드리 통나무를 쟁반처럼 잘라내어 오목조목 박아놓고, 저 한켠에 들어선 집들은 엽서에서 보았던가. 파라솔이 늘어서고 소경네 안경같은 가무죽죽한 유리창을 대청마루 만들하게 집집마다 박았는데 사는 이가 없는가 조용하기만 하다. 팻말을 언뜻 보니 전용 클럽이라 하는구나. 그 긴 막대기야 휘두르지않으면 어찌리. 저 잔디밭을 몇걸음이라도 밟아보고 싶었는데 출입구에 경고판이 붙었거늘 "골퍼 외 출입금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골퍼가 될까? 우선 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 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하고 골프용구와 복장을 갖추는데 수백만원을 들인 후에 하루 경비 10만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어야 골

퍼가 된다. 축구장 200배 넓이가 되는 30만평의 대초원이라야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골퍼는 150명이 고작. 새까맣게 그슬린 캐디에게 골프채를 등짐지우고 재 발바닥 밑에 2,000명의 푸른 초원을 대기시킨 후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썬캡을 비켜쓰고 골프치는 사람이 바로 6공의 대중, 골퍼의 모습이다.

6공의 대중은 왕후장상, 고관대작, 큰손과 졸부이다. 결혼생활 10년 만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어 감격한 내 남편이나 이천오백원 하는 고등어를 살까말까 망설이는 주부는 6공의 보통사람 속에 끼지 못한다. 하기가 6공 치하에서 새로이 골퍼로 부상한 이들이 있기는 하다. 바로 기자들. 우리나라 기자들의 춘지행각이 외국신문에까지 오르내려 망신살 뽀뽀지가 얼마전인데 요즘엔 웬만한 출입처의 기자마다 화제가 골프란다. 판은 3당통합도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고 요즘엔 민자네 민정계파가 골프장에서 회동하여 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 듯하니 6공의 기자가 골프장

300,000평에 150명
회원권은 170,000,000원

출입이 잦아지는 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기자들이 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골퍼가 되고 싶어하는지라 기자 구워삶기에 이력이 난 각 부서에서 이들을 '북킹'해 주기도 하고 기자들이 먼저 요구하기도 한단다. 우리나라 선거사를 보면 고무신표에서 시작하여 요즘은 관공표가 되었듯 춘지도 세월따라 진보하여 골프향응이 된 것이다. 그러니 기자가 골퍼가 되었다는 사실은 골프

골프장이 쓰는 농약은 모두 118종으로 이중에는 맹독성 농약도 17종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은 ha당 48kg인데 이것은 농경지용의 6배, 산림용의 24배에 해당한다.

골프공화국의 '놀이' 정책

유소림/여성민우회 편집실장

가 대중화 하였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6공이 기자마자 큰손이나 줄부 대열에 끼여 참여하도록 타락시켰음을 말하고 있음이다.

아무튼 골프대중화 정책이란 예시당초 속임수였음이 너무도 분명하다. 속임수 뿐 아니라 속는데 이력이 난 우리 국민을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겠으나 골프대중화 정책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우선 골프장의 실태를 보자. 5공 시절 40여개이던 골프장은 6공들어 178개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에도 '89, '90년 2년 사이에 늘어난 골프장은 무려 113개. 전체면적은 6천4백여만평으로 전국 택지의 11%에 해당하고 1천만 노동자의 생활터전인 전체 공장면적 5천7백여만평을 훨씬 넘는다. 또 지금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골프장 118개를 건설하는 데 드는 자금은 1백20만채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또 최근 2~3년 동안 골프장 건설에 투자된 자금규모는 3~4조원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총액인 50조원의 8%에 해당한다.

골프장의 신규 사업주들은 당연히 재벌들이고(삼성, 럭키금성, 한국화약, 한진, 금호, 라이프, 대림산업, 쌍용, 두산, 한일, 대농, 코오롱, 에경유지, 고려제강, 태광산업 등이 골프장 사업 시작) 이들의 골프장은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업무용으로 둔갑되어 엄청난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은 4천만 모두에게 생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무서운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1944년 갑신 대홍수에도 물난리 한번 겪지 않았던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는 지난 '90년 9월 집중호우에 인근 골프장의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옥 12채가 매몰되고 농경지 3만여평이 유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는 단지 공사중일 때만 생기는 게 아니다.

보통 30만평이 넘는 골프장은 대개 절반 이상이 산림을 몽개버리고 인공으로 잔디를 조성한 곳이다. 우리 토양에 맞지도 않는 수입잔디를 억지로 심느라

골프장이 전국택지의 11% 5공때 40여개, 6공때 178개

고 숲을 베어내고 산기슭 깎아낸 다음 부식토로 배우고 있으니 풀과 나무들이 담당하던 홍수조절기능이 상실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게다가 잔디는 빗물 지탱능력이 숲의 4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800~900톤의 물을 뿌려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위의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하게 된다.

골프장의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환경 피해는 농약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장 캐디의 기형아 출산으로 전부터 문

제가 되었던 골프장의 농약사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농약 살포는 잔디가 인공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에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인공으로 깎아낸 잔디는 병치레가 심할테고 이걸 막자니 농약치레가 시작된다. 또 잔디는 지렁이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라 이 지렁이를 먹으려고 텃버드는 두터지로 잔디가 땅가지를 일을 막기위해 지렁이 씨를 말리고자 땅속 50cm까지 농약이 스미도록 대량으로 살포한다. 또 비가 오면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농약의 독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밖에 없다.

환경처의 집계에 따르면 골프장이 쓰는 농약은 모두 118종으로 이중에는 맹독성 농약도 17종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은 ha당 48kg인데 이것은 농경지용의 6배, 산림용의 24배에 해당한다. 이 농약들은 30%가 토양으로, 30%가 대기중으로, 나머지 40%가 하천으로 스며 들면서 우리의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모두 오염시키고

골퍼가 되려면 우선 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하고 골프용구와 복장을 갖추는데 수백만원을 들인 후에 하루 최소경비 10만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배바메무초와 골프를 즐긴 이는 보통대통령과 그와 가까운 왕후장상들이지만. 골프장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이땅의 민중들이 수해로 농약으로 결국 오염된 국토와 귀족병으로 몇갑절 치뤄야 한다

있다. 물론 골프장 측은 오염된 물을 연
곳에 14일 동안 저장했다가 방류한다고
변명하지만 비가 오면 저수능력이 부족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각 골프장마다
저장용량이 크게 부족한 데다가 그 시설
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
다. 극소수 몇명의 허황된 놀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의 터전

골프장 농약은 118종 산림용의 24배 살포

을 홍수와 가뭄, 끔찍한 농약오염으로
때맞기고 있다.

한편 골프장은 인근주민들의 삶을 모
조리 파괴하고 있다. 농경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기도 하는 이들 주민은 공사가
시작되면 24시간 계속되는 발파음과 먼
지, 공사에 따른 여러가지 위험에 시달
려야 한다. 공사장에서 날아온 돌에 부
상당하기도 하고 발파음으로 집 담벼락
에 금이 가고 축사가 주저앉고 가축이
사산하여 주민들은 신경성 노이로제 증
상을 앓는다.

이런 생고생을 견뎌낸 후엔 피약벌아
래 일하는 농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자가
용을 타고 골프장에 드나드는 골퍼들을

구경해야 한다. 골프장 농지수용 때 앞
장서던 면장도 골프장이 들어서면 동네
가 엄청나게 발전할 듯이 떠들었지만 모
든걸 골프장의 클럽 내에서 해결하면서
오고가는 동네길에 자가용의 매연가스
나 선사하는 골퍼들이 그 동네에 주는
해택이 하나라면 그 해악은 열가지가 넘
는다.

농지를 팔아넘긴 농민은 골프장의 잡
역부로 전락하고 골퍼들 때문에 동네 분
위기는 공연히 소비적이고 향락적이 되
어 아이를 키우기마저 힘들게 된다. 실
제로 동네 꼬마들은 골프장의 공을 주워
얻은 쾨돈으로 즉흥적인 소비습관만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선 여전히 골프장 개발
이야말로 단군 이래 농토란 얼마되지 않
는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땅
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리인데 실제
로는 부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가깝고
도 경치가 빼어나고 물 좋은 곳에 골프
장이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 골프장의 절반
이 모여 있어 도면적의 1%가 골프장이
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강원도는 또 어
떤가. 춘성군 북한강변의 산림보존지구
에도 골프장이 들어서 20~30년생 나무
를 4.5톤 트럭 370대 분을 베어냈다.
실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솔밭에 골프
장을 만들 때는 땅이 모자라자 균유림을
임대해 주기까지 했다. 제주도 중문 골
프장의 경우는 91%가 농경지이다. 농
경지 매입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섰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전국토를 병들게 하고 농약
오염에 찌들게 하며 국민들 사이에 위화
감을 쌓이게 하는 골프장 건설이 이토록
기세를 떨치고 또 국민들의 빚발치는 비
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장부터 청와
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골프장 건설에
중개역할을 자임하는 이유는 무엇까.



정부와 사업주 측은 '사회체육의 환
성화'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
한다면 우선은 각급 학교 운동장을 조금
이나마 더 넓히고 운동장에 모래라도 뿌
려 놓아 흙먼지 속에 아이들이 체육시간
을 보내야 하는 고역부터 고칠 노릇이
다. 아이들은 놀 장소가 없어 골목마다
쫓겨 다니고 있다. 또 서울 변두리의 위
성도시들은 어떤가. 개발 붐을 타고 집
들만 탁지탁지 들어섰는지 손바닥만한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게 우리의 현실 아
닌가.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축구의 경우도 변변한 연습장 하나 갖추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홀 규모의 골
프장 1개의 면적이면 무려 150개의 축
구장을 만들수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촌에 자리
잡은 한국사회체육센터는 사용료가 비
교적 싸서 '88년 한해동안 156만명이 이
용하였다. 그러나 이 체육센터 건설비
용의 40배를 들인 17개의 골프장을 이
용한 사람은 1백37만명이었다. 무엇이
괴연 사회체육 활성화인지는 동네 꼬마
도 알 수 있는 노릇을 골프장 사업주와
정부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골프장 건설의 진짜 이유-그것은 바
로 돈벌이이다. 골프장 건설은 때론을



권력에 얹힌 비리. 이를 둘러싼 사전 협상들이 '골프
장 회화'이라는 고상한 이름하에 이루어진다

**국민들의 빚발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토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골프장 사업에 정부가
앞장서는 이유는 골프장 허가를 둘러싸고 오가는 어마어마한
로비, 정치자금에 있다.**

별게 하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이다. 땅을 그냥 사두기만 해도 그것이 곧 몇 배의 이익을 보장하는 터에 땅을 사서 골프장으로 가공한 후에 임무용으로 판정 받으면 엄청난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터에 골프장사를 하지 않는 재벌이 있다면 오히려 정신 나간 놈이 아니겠는가.

총공사비 300억원 드는 18홀 짜리 골프장을 만들어내면 회원권(5,000만원×1,200명) 판매만으로도 3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것이 바로 3-6홀 짜리 퍼블릭 골프장 건설을 기피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골프장의 61%가 퍼블릭이고,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퍼블릭인 반면 우리나라는 퍼블릭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혜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골프장 장사에서 실행 망한다 해도 평당 3~4천원에 샀던 땅이 5~6만원짜리로 둔갑되었으니 골프장 장사야말로 핏 먹고 알 먹고 털판고, 땅짚고 해업치기인 셈이다.

실제로 돈 한푼 없이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 생긴 80만평 36홀 규모의 기흥골프장은 경우회가 돈 한푼 없이 대우와 공사계약을 맺은 후 70억~80억을 대출받아 터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령자체가 허술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도 두달 내에 대중 만들어지며 편의에 따라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하기도 한다.

춘천에서는 산림훼손 허가가 나기도 전에 나무를 벌채하고 그린벨트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 자연녹지를 파헤치고

인한 외국농산물개방으로 벼랑에 몰린 우리 농민들에게 이 골프장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36개 단체가 힘을 모아 골프대중화 정책의 철회를 위해 관계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청원서에 서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단체, 관련 사회단체들은 여섯가지를 주장하였다.



충북 음성에서는 골프장을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가평, 파주, 포천의 골프장은 식수원과 인접한 거리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묵인되고 허가되고 승인되고 아무 거리낌없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경유착의 엄청난 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선 돈 있는 곳에 정치자금 이 있는 법인지라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로비자금이 뿌려지고 곧 이 돈은 정치자금이 된다.

게다가 골프대중화로 골프장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이래 지방단체들은 세수확장이란 명분아래 면, 군 직원들까지 앞장서 골프장 유치작전을 벌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곳에 도사된 뇌물은 또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 우리 국민은 골프장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데다가 한 술 더떠서 돈있는 자들의 더러운 손에 더한층 정치를 맡기는 꼴을 당하고 있다. 더구나 우르퍼이라운드로

첫째, 골프장을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시설로 원상회복 시킨다.

둘째,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의 건설이나 운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골프장에서는 농약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농약을 사용금지 시킨다.

넷째, 골프장건설을 위한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금한다.

다섯째, 주민대표들이 골프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골프장 감시활동을 보장한다.

여섯째, 정부는 골프장 운영이나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실태를 다음 국회의 임시회의시 보고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업주의 눈속임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18평 아파트 하나 장만에도 평생을 바쳐야 하는 우리는 더무도 당연히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땅투기, 환경파괴, 골프장건설 중단하라! *

관광휴양시설로 원상복구시키라

를 사고 회원권을 팔아 사업비의 80%를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골프장 건설은 이렇게 손 안대고 코 풀기 식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갖가지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다.

1990년 3월 체육부가 고시한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광역상수원에서는 20km, 상수도 보호구역과 취수장에서는 10km 떨어져야 하고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보전임지로 지정된 국공유림은 골프장으로 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91년 2월에 발효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지난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91 여성주간행사-건강한 모성보호, 신나는 평생일터」에서 민우회는 「산전산후휴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라는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 연극에 직접 참여한 회원과 행사에 참여했던 회원의 소감을 들어본다 - 편집자

평소에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우리의 현실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바지만, 이번 여성주간 행사를 통해 미처 내가 느끼지 못했던 구석구석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고 또한 각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일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여성이 한 인

성민우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런 내게 미연은 분화구가 되었다. 미연을 통해 나를 재정비하게 되었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리란 다짐을 하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신문지상에 오를 내용을 보고 주위의 구구한 억측과 비꼬는 태도와 여자가 아무리 뛰어야 ○○

‘미연이’를 통한 나의 재발견

김동엽/ (주)삼미 여직원회장, 여성민우회 회원

간으로서堂堂하게 살아갈 날이 멀지 않으리란 용기를 갖게 되었다.

민우회원들이 꾸민 촌극 ‘산전 산후휴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는 모성보호라고 목소리들은 높이면서도 집안에서 남편이 보호해 주면 되지 하는 식의 물지각한 편견으로 가득한 남성들에게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피동적으로 이행하는데에서 탈피한 여성이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 거기에 따른 모성보호는 당연하고 적법이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던 것 같다.

미연이란 주인공 역을 맡으면서 극속의 입장과 문제점이 우리의 당면문제에 동감했고 누군가에 의한 일음보다는 내가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극의 흐름을 통해 내 자신이 바로 미연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사무직원이라는 위치로 산업전선에 뛰어들 내게 동등한 입장이면서도 여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야 했던 차별과 부당함, 업무·임금·승급·결혼과 동시에 조기정년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혼자 근무와 승급을 두고 여러차례 경영진들을 만났지만 개선 되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당연한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제도적 모순에서 내 몫과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났지만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여직원회장이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던 중 한국여

라는 비난, 비합리적이고 우격다짐식으로 밖에 변명할 수 없는 몰염치하고 몰



상식한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게 채찍을 가하는 독려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우리라는 강한 욕구를 가졌다.

비록 짧았지만 이번의 행사 과정을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비단 내 직장만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근로여성 누구나가 겪는 아픔이고 서러움이란 걸 확인하면서 내 인생 지표에 확고한 방향제시를 하게 되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선배분들에게 힘찬 격려를 보내며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한 여성단체연합과 여성 민우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

일하는 여성으로서 한 평생 노동의 즐거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땅 이천만 여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 아래 여연에서는 '91년을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립의 해'로 정하고, 지난 10월 5일부터 1주일간을 여성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2부로 꾸며진 첫날 선포식에서, 1부는 이효재 여연 회장의 대회사와 고대 병원 성숙영 씨의 산전산후 휴가 60일 쟁취 투쟁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고, 문화공연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안혜경씨와 증권사 노조협의회 및 럭키화재 노조의 노래패가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서에 걸맞는 노래로 흥을 돋구어 주었다.

이어진 촌극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과 여성민우회에서 각각 여성 노동자들의 평생, 평등 노동권 쟁취를 주제로 공연을 하였다. 직장내에서 임신과 출산

신나는 한판, 일하는 여성들의 한마당

홍현숙/여성민우회 회원

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다양한 반응과 가족, 특히 남편의 물이해로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실현이 험난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평생, 평등 노동권의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길은 개인으로서 여성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이어서는 안되며, 이천만 여성 나아가 사천만의 한결같은 의지로 헤쳐 가야함을 새삼 깨닫게 했다. 바쁜 일과후의 급속같은 시간을 쪼개어 준비한 촌극과 노래는 나를 포함한 사무직 여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기에 프란치스코 회관에 함께 했던 의로운(?) 동지들의 우회와 같은 박수와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

아침을 먹고 다들 부랴부랴 쟁겨 나가고 난뒤 어질러진 주위를 둘러보며 부엌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뒤숭숭해졌다. 며칠전 평론으로는 이름자의 첫자만 들먹여도 알만한 문학평론가 ○○○씨가 소월 시의 '한의 정서'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여자들 한 있어요?" 라고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너무도 확신에 찬 말투에 모두들 묵묵부답이었고, 나도 어리둥절 했다.

집으로 오면서 그 말을 곰곰히 되씹으며 지난 여름에 앓은 내 열병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어느 운동가의 삶의 여정을 찾아 그의 제관 참관에 열중했었다. 또 내가 소속된 단체의 일 때문에 동분서주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일이 일을 달고 다니고, 집안일도 더야 무지게 할려니 항상 바쁘고 긴장된 나날이었다. 그런 생활속에서 나는 강철처럼 단련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런데 웬걸,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일이 40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요 몇년 사이 뇌막염, 폐염, 기관지염 등 온통 여름에 병치레

열 병

김정희/여성민우회 편집실원

를 하였으니 나는 열병 집이 났다. 그때 마침 천정어머니께서 우리집에 와 계셨다. 어머니께서는 얼음수건으로 냉찜질을 해 주시면서 "아이고, 땀기도 잉가 이 땀기야지 이래가지고 니 명대로 못산다. 무슨 수를 내도 내야지 운동이고 뭐고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이가. 알만해도 니가 물이 들어도 엄청시리 들었는 갑다. 무슨 신이 들렸나. 인자 좀 고만 땀기라야 응."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안심하라는 듯이 "괜찮소, 며칠 쉬면 괜찮을 끼요." 하며 씩 웃었다. 다행히 병원에 다니면서 며칠 쉬다 보니 열은 내렸다.

나는 다른 주부들에 비해서 집안일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오빠와 남편 그리고 나, 단 세식구뿐이니까. 결혼할 당시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일과 집안일의 이중고에 건강문제까지 겹쳐 몇년 버티다가 집안일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 제일 쉽고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박상 집에 있어 보니 그게 아니었다. 밀도 끝도 없이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집안일과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은 나의 숨통을 틀어 막았다. 항상 집안일을 즐겁게 하려고 여러가지 의미를 붙여보기도 하고 노래도 흥얼거려 보지만 결국 이 자절구래한 집안일에서 헤어날 전망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침울해지면서 노래가락은 저절로 신세타령조가 되어버리고 만다. "집안일은 내 적성에 도저히 안맞아. 누군 맞아서 하나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죽을 때까지 집안일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솔을 할까? 출가를 해 버릴까? 아니다 탈출해야 한다!" 사실 내가 아무데도 다니지 않고 집안일만 하고 있었다면 열병보다 더한 옹화통이 터져도 터졌으리라.

나는 그 평론가의 말을 비난할 생각보다 우리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더 열심히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다. "요즘 여자들 한 있어요?" *



다들이 방망이

홍옥인들 전사했으랴

유소림/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전철역 담벼락에 기댄 비닐올막, 색색의 과일들이 찬란하다. 연시의 진주황, 단감의 연주황, 굴의 노란빛, 사과와 빨간 그 옆엔 명색 가득 알밤들. 스산한 도시변두리가 담박에 가을이다. 농약과 비닐에 찌들은 땅에서도 저리 아름다운 것들을 길러내니 우리네 가을은 얼마나 너그러운지.

빨간 사과를 문득 쳐다보니 홍옥이구나. 무슨 표딱지도 붙어있지 않고 비대중에도 걸리지 않아 한 손에 그저 잡히니 참으로 오랫동안 상콤아닌 그냥 자연물을 보는 듯 하다. 계절을 두루 돌아 가을에야 비로소 익고 그 속엔 감로수가 가득하며 조그만 씨앗들이 살고 있는 둥그란 생명체. 그 중에서도 빛깔마저 환한 타는 홍옥. 한 입 물면 귀 밑까지 찌르르 번지는 새콤한 맛과 그 빨간 불이 우리네 가을하늘과 한쪽으로 어울리는 우리의 사과. 값을 치르자니 천원에 일곱개란다. 배 한알에 이천원, 갈지 한마리 삼천원 하는 요즘같은 낮은 물가에 어찌자고 너만 혼자 이리도 험하냐. 일곱알을 담자니 측은하기 짝이 없어 반짝이는 낫들을 다시 한번 만져 본다.

지난 추석엔 쟁상에도 못올랐다. 아오리니 바나나니 하는 것들에게 밀려서, 이제 한두 주일 지나면 또 어찌

나, 후지에 쫓겨서 가게 구석 상자 속에 박혔다가 이윽고는 두엄더미 위로 던져지는 건 아닐까. 배고픈 까치는 먹어 줄까. 사람들의 발걸음에도 짓밟히겠지.

아오리가 이른 시장을 휩쓸고 간 후에 후지가 미처 나오지 못한 짬에나 제가 태어난 땅의 바람이나마 쏘이는 불쌍한 홍옥아. 이놈에 치이고 저놈에 치여서 반쪽 땅이 되더니 핵이 오거나 가거나 그놈들 뜻일 뿐 주인노릇 못하는 못난이가 홍옥인들 전사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도 홍옥은 국광에 비하면 다행인 편이려나. 남의 손에 굴러가 다른 성씨와 어찌 어찌 섞여서 후지라는 생판 어긋난 이름이 붙여진 후 제 고향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국광. 그러나 홍옥아, 너라고 그 구차한 신세를 언제까지나 지킬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한알 씹아주니 아이가 더 먹자 한다. 맛있지. 이게 원래 우리 사과란다. 임마 어렸을 땐 이 사과를 옷예다 그냥 쓱쓱 문질러서 퉁퉁퉁퉁 먹었지. 이 사과 이름이 빨간 구슬이야. 어디 바나나 같은 게 이 맛을 따르겠니. 우리 나라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내니 참 좋지?..... 아이에게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 해준다. *

권력을 넘어 드디어 자본과의 싸움으로

박인규/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언론을 지배하는 자본의 힘 '김중배사건'에서 드러나

지난 8월 1일 동아일보는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중배 씨를 조사연구실장이라는 한직으로 인사조치했다. 이 인사조치는 김국장 본인은 물론 동아일보를 주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6월 15일 김중배 씨가 편집국장이 된 이래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수서택지특별회 분양사건 등에서 동아일보가 보여준 날카로운 비판적 논조에 박수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김국장의 1년 1개월여만의 경질은 정말 예상외의 인사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김중배사건'의 파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 한달 뒤인 9월 6일 김씨는 편집국장 이·취임식 석상에서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를 강력하게 비난하

면서 사표를 던져버린 것이다. 김씨는 이날 '한국의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이며 영구적 제약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최근 동아가 위한 일련의 인사조치와 자본의 논리를 강요하는 일명 「보도지침」이란 괴문서가 사내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는 정작 그 누구도 자본의 이러한 횡포와 부당한 간섭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 누군가가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면 나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를 거론하게 됐다'고 밝히고 자본의 언론통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동아일보를 떠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과 같은 '김중배사건'이 갖는 의미는 자본이 언론(자유)에 대한 최대의 통제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사회에 표면화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5공때까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최대의 적은 정치권력이었으나 6공이후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자본의 언론통제력이 급부상했음을 '김중배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변화는 이미 6공의 시작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6공의 언론상황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발행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5공에 이르기까지 한국언론의 역사는 한마디로 권력과의 유착과 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언복합체'란 말이 상징하듯이 언론은 권력의 충실한 홍보도구로 전략한 대가로 경제

적 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권력은 신규언론의 창간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기존언론의 기득권을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민주화를 표방하여 성립된 6공정부로서는 더 이상 '발행의 자유'를 봉쇄할 명분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언론사가 대거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행의 자유 실현'이 곧바로 '국민적 표현의 자유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결과를 놓고 말하자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적 강자의 언론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또한 신규언론의 대거탄생으로 인한 언론경쟁이 '무한중면 경쟁'등으로 자본의 언론통제력을 강화시켜준 것이다. 우선 언론소유주의 성격규명을 통해 이같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의 경우, 5공때까지 6개였던 것이 6공들어 10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순복음교회와 통일교라는 거대 종교집단에 의해 창간됐으며 한

일간지 급증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 소유

겨레신문은 국민주 모금에 의해, 민주일보는 학원사라는 중소기업자본에 의해 탄생했다. 한편 정부소유나 다름없었던 경향신문은 한국화약그룹이 인수했다. 다음으로 대농그룹이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 5공때 폐간당했던 내외경제신문을 복간시켰다.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인 현대그룹은 문화전문일간지 형태로 문화일보를 오는 11월 1일 창간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자리잡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언론사의 사옥들. 거대자본의 단적인 모습이다

새로 생겨난 언론의 대부분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소유이다. 이것은 6공들어 실현된 '발행의 자유'가 기층민중을 비롯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강자들의 사회적 발언을 강화시킴을 뜻한다.

할 예정이다.

5공 때 10개였던 지방일간지의 경우 최근 3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6공들어 중·소상공인에 의해 복간됐던 국제신문이 롯데그룹에 인수됐으며 항도일본(현 부산매일) 역시 대우그룹에 인수됐는데 이로써 부산의 3개 신문중 2개가 재벌소유로 됐다. 대우그룹은 대구에서

광고수입 비중 늘면서 광고주의 입김도 거세져

복간된 영남일보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경영권을 갑을그룹에 넘겼으며 최근에는 민주일보와 인수교섭을 벌이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민주일보는 결국 경영난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새로 생겨난 지방일간지의 거의 대부분이 건설업, 제조업 등 각 지역의 대기업들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새로 생겨난 언론의 대부분이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소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6공 들어 실현된 '발행의 자유'가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을 비롯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등 경제적 강자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한편 경향·국제·항도·영남 등의 소유권이 재벌로 바뀌었다는 점, 또 중소자본에 의해 창간됐던 민주일보가 경영난으로 폐간된 점 등을 보면 언론계의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는 것과 언론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언론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1차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론은 알게 모르게 언론소유주의 이익(또는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소유주라면 재벌의 입장을, 정부가 소유주라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기자나 편집인이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신문을 만든다면 소유주는 인사권을 발동, 그 사람을 갈아치우면 그만이다. 김종배국장의 전격 경질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6공이후 재벌 등 대기업이 소유한 언론이 늘고 있다면 이는 재벌(자본)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언론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자본의 언론통제는 소유주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광고주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언론을 먹여 살리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 광고주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사 수입의 60% 이상이 광고수입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사실 독자들이 낸 구독료는 신문용지값과 인쇄비도 충당하기 힘들 정도인 것이다.

현재 중앙일간지의 광고수입 비중이 65~75%쯤 되며 지방일간지는 광고의

사실 김종배국장의 표현대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은 언론에 대한 원천적이며 영구적인 제약세력일 수밖에 없다. 또한 6공이후 재벌 등 대기업이 새로운 언론 소유주로 등장하고 광고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경제정책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의 대립, 정주영씨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부와 현대와의 갈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정부와 재벌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재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정치권력보다



'90년 4월 온 국민의 관심속에 관제사장 서기원의 취임을 거부하며 격렬히 진행됐던 'KBS 방송자유 사수투쟁'에 동참한 시민들

존도가 더욱 높아 대부분 70~80%, 심지어 90%가 넘는 언론사도 있다. 광고수입과 구독료수입의 비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언론이 어느 편 입장에 설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광고수입이 60%를 넘으면 언론은 공익성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의 르몽드 같은 신문은 광고수입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경우, 최근의 격렬한 증면경쟁 등과 관련해 해마다 광고수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광고주에 의한 언론통제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 더욱 상대하기 힘든 자본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자본의 언론통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국민주 모금의 한겨레신문, 사원 지주제 형태의 르몽드, 비영리재단법인 소유의 프랑크푸르트 알제바이네 차이퐁(FAZ) 처럼 소유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하든가 ▲일선 언론인과 경영진간의 계약에 의해 편집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법 ▲언론노동자운동 등을 통해 독자들이 언론을 철저히 감시·비판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

안녕하십니까? 함께가는 생협입니다

지역협의회 소식입니다

제7차 지역협의회 모임이 각 지역별로 있었습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는 여성개발원에서 만든 여성영화로 중년 여성이 자아상실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내일은 빛」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노원·도봉지역에서는 5개 공동체 일곱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유리 극동아파트의 김영순 조합원님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성민우회에 대한 예정이 대단하신 남편 덕분에 이대에서 모일 때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대접을 잘 받아 다른 조합원들 모임하기가 겁난다고 한마디씩씩.

9월에 새로 생긴 공동체인 월계 삼호아파트의 김종현 조합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강동·송파지역에서는 한시간 가량의 영화 감상이 끝난 뒤 진행된 토론에서 노원·도봉에서보다 훨씬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겨우 이런 정도의 대안(여주인공인 중년 여성이 문화센터에 등록, 그림을 그리지 몇 개월만에 상을 받고 남편과 가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면서 만족해 하는 내용)밖에 제시하지 못하는가. 자기만족의 취미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합원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지적 등 결국 먹거리를 통한 생협운동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의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그나마 별 문제를 못느끼고 사는 행복(?) 중년여성들에게 문제제기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쉽사라 하여 점심을 같이 먹고 집안얘기들을 나누다 정선자 조합원의 지도로 「햇볕한줌」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강남·서초지역에서도 5개 공동체 일곱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압구정 현대의 한국회 조합원으로 부터 개정 가족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정법을 상담소에서의 상담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어 더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아직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는, 우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게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서대문·마포·은평지역에서는 마포 현대 조도주 조합원님께서 모임을 가졌는데, 조합원이 네분만 참석하여 소모임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합애기와 합성세제대신 비누로 살림을 하자는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보았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나누는 일 외에 우리의 환경을 걱정하고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만날 때면 힘이 납니다.

구로·영등포·양천지역은 10월 25일 고척우성 변경희 조합원님께서 여성영화를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 *

쌀 선수금이란?

선수금이란 1년 필요한 쌀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쌀을 생산한 농민들은 그해 가을 추수를 하여 쌀을 팔아 그해의 영농자금 빚도 갚고, 생활비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의 추곡 수매에 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판로로 개척하여 가을에 생산량을 전부 처분합니다.

조합에서도 필요한 양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쌀값을 미리 드려 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께서 1년 소비량의 쌀 값을 미리내는 것입니다. 공급은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을 공급 받으므로 결국 생산농가에 1년치의 쌀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

올해 쌀값이 결정되었습니다 -1가마니 17만원

올해 무농약 쌀 한가마니(80kg) 가격이 1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 오른 가격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생산비를 인상,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한 가구당 월 평균 쌀 소비량을 20kg으로 볼때 올해 한달 쌀 값은 42,500원으로 작년보다('91년) 3,800원 인상된 셈입니다. *

올해는 선수금에 한해서만 무농약쌀을 공급합니다

올해는 무농약쌀(현미포함)을 선수금을 내신 분의 몫만 확보, 공급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는 선수금과 은행융자금으로 생산농민께 쌀 값을 미리 드려 약 300가마니의 쌀을 확보하여 원하는 조합원께 모두 공급하였습니다(9월, 10월은 확보된 쌀이 부족하여 선수금을 내신 분만 공급) 그런데 쌀의 매출마진이 은행선수금리보다 적어 조합경영에 상당히 무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수금을 내신 분의 몫만 확보하여 공급키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쌀 선수금을 내셔서 무농약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12월 28일 까지 받습니다 *

조합원들께 부탁드립니다

- 물건을 받으실때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받으신 물건과 수량 가격에 착오가 있을때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늦어도 이틀 후까지)
- 은행으로 입금하실 경우 동명이인이 많아서 착오가 있으므로 조합원번호와 이름을 함께 기입하여 주십시오. *

햄 · 소세지

- 1) 원육부터 다릅니다 ① 넓은공간에서 운동을 많이하고 ②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주문사료와 찬밥 등으로 키웁니다. ③ 맛이 뛰어난 흑돈(바크샤)이 주 원료입니다.
- 2)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습니다
방부제, 발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늘, 생강, 후추, 소금으로 맛을 냈습니다.
- 3) 보관기간 냉장고에서 10일입니다.
- 4) 생산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영보물산
원육공급지 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농장
가격 햄(500g) : 7,000원
소세지(500g) : 6,000원

사 과

- 1) 품종 = 부사
- 2) 제초제, 착색제, 낙과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은 저농약 사과입니다 대부분 사과는 제초제, 착색제, 낙과방지제 등 17회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데 조합에서 현재 공급하는 사과는 7회정도 농약을 살포한 것입니다.
- 3) 당도가 높습니다 추석전후를 즈음하여 사과 질이 낮았는데 그때 물량이 모자라서 덜익은 사과를 따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사가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 4) 생산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이후읍
가격 5kg : 9,000원



고 기 류

- ② 쇠고기 경기도 시골농가에서 한두마리씩 기르는 소를 사서 씨알축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농약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한우입니다.
- ③ 돼지고기 의정부의 풀무원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고기입니다. 풀무원농장에서 남은 두부 콩나물밥 찬밥을 먹고, 톱밥발효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입니다.
- ④ 닭고기 경기도 화성군의 정농회원이신 김준혁장르님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입니다. 넓은 공간에 풀어놓고 키우고, 항생제나 약을 투여하지 않은 닭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에서 공급하는 모든 육류는 항생제, 성장촉진제를 투여하지 않고 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를 키울 때 투여 되는 항생제, 성장호르몬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약** 수입소고기의 대부분이 호주산인데 '87년 8월 호주산 소고기로부터 DDT, 디엘드린 등의 살충제가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고 있음이 미국측에 의해 발견됨. 이러한 농약은 어느것이나 유기염소계의 살충제로 간장암을 일으킨다.
- **항생물질** 성장촉진, 질병예방, 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근래 축산에서는 다량의 항생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료첨가제는 육우의 사료효율을 10%나 향상시킨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체중이 붙어하는데 필요한 사료가 10% 적게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84년 미국역병예방센터가 항생물질을 투여하여 사육했던 육우의 고기를 먹었던 17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1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항생물질이 직접피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소에 항생물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에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항생물질의 내성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 균에 인간이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이다.
- **비옥촉진제** 비옥촉진제는 빨리 자라기위해 사용되는데 주로 여성호르몬제가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75년까지 DES(디에틸stilbestrol)가 성장호르몬제로 소나 양에 사용되었는데, DES는 여성에게는 질암의 발생이 높게 되고 이를 사용한 남성에게 유암이 발생된 것이 판명되었다. 호르몬제는 미량으로서도 효과를 발휘하므로 식육에 여성호르몬제가 잔류하고 있으면 그 양에 따라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함께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여러가지 삶의 이야기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시십시오.

원고는 <120-013 서대문구 충정로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함께가는 여성」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아래로 송금하신 후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포함 연회비 : 7,000)

○ 온라인 송금하실 곳 : 상업은행 : 109-08-195935 홍영주

○ 지로참구 이용 : 민우회 번호 7519497 전화로 신청하시면 곧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편집실에서는 「함께가는 여성」 제작에 같이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1992년부터는 좀더 발전된 신문을 우리 회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 편집에서 사진, 컷에 이르기까지 외곽적으로 일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실로 연락주시십시오.



역시 김치는 우리네 밥상의 최고

정대은/여성민우회 생협 조사홍보위원

아이가 김치를 못먹는다고 걱정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뽕고쳐서 아예 안 먹인다는 엄마도 있다. 또 해마다 김치 소비량이 줄어간다고도 하고, 한편에선 외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담그기가 번거롭다고 젊은사람일수록 귀찮아하지만, 백화점에서 제법 큰 배장을 내어 갖가지 종류의 김치를 팔고 있는 것을 보면 김치가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러나 저러나 겨울은 다가오고, 배추파동에 김장이 되는 금장이 되는 우리 주부들은 겨우내내 먹을 김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 김치가 어떤 영양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본다면 힘든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단백질 · 칼슘의 영양원 섬유질 많아 변비도 예방

옛 문헌을 보면 김치는 농경시절에 긴 겨울동안 야채를 먹기 위해 간단히 소금에 저장해 먹던 것으로 시작된 듯하다. 이것이 삼국시대로 오면서 곡물과 생선을 같이 섞어 발효시킨 상태로 발전했고, 조선중기(16C~17C)에 중국에서 고추가 전해오면서 생선류로 만든 것과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고춧가루를 넣어 만들어 현재의 김치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는 재료로 쓰이는 야채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켜 소금의 짠맛이 젖산이나 초산으로 변해 그 짠맛도 줄어들고 그다지 시지도 않는 잘 익은 상태가 되었을 때 먹게 되는 저장식품이다. 그러므로 기후나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남부지방의 경우 저장에 편하도록 짜고 양념도 진하며 멸치젓을 쓰고 있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염도

나 양념은 좀 덜해지고 대부분 새우젓을 쓴다. 이에 비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북부지방은 싱겁고 쇠고기육수를 넉넉히 넣어 시원한 김치국물을 내어먹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어느 지방의 김치든 배추, 무우 등의 야채류와 젓갈이나 쇠고기, 마늘, 파,

도 최고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잘 익은 김치가 설 익은 김치보다 10%정도 함량이 증가하고, 시어지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비타민B 복합체 양도 1.5에서 2.5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가 겨울철 하루에 먹는 김치량이 300



긴 겨울동안 야채를 줄곧 먹기 위해 우리 겨레가 고안해낸 지혜의 산물, 김치. 겨울철 하루에 김치 300~400g을 먹게되면 우리는 필요한 비타민 B 복합체의 절반을, 비타민C 필요량의 30~50%를 섭취하게 된다

생강, 고춧가루 등의 양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영양학적으로 짚어 본다면 야채에는 겨우내 섭취하기 힘든

적당히 익었을 때 맛도 최고, 영양분도 최고

비타민C와 비타민A의 역할을 하는 카로틴이 많고, 장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또 젓갈은 새우, 멸치, 황새기 등의 작은 생선을 뼈째 절여 만든 것이라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김치가 적당히 익어 맛이 좋을 때 그 영양분

~400g일 때 이속에서 우리의 하루 비타민B 복합체 필요량의 반을, 비타민C 필요량의 30~50%를 섭취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김치는 겨우내 온상에서 비료와 농약으로 키운 야채와는 다른 싱싱한 영양분을 갖고 있다. 우리 생협에서는 되도록 키운 좋은 배추를 김장거리로 공급할 예정인데 단순히 우리 음식이니 무조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영양식품이니 올 겨울내내 먹을 김치를 충분히 담아 가족의 건강을 도와보자. 그러다가 시어지면 김치찌개며, 김치전으로 색다른 맛을 낼 수도 있지 않은가? *

11월 공급품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 / 따르릉 : 521-2088~2089

1991. 11. 1. 현재

번호	품목	단위	가격	생산지	번호	품목	단위	가격	생산지
10102	무 농 약 떡 미	10kg	20,000	철 원 · 홍 성 (선수금분만 확보했습니다)	40505	메 밀 냉 면	500g	1,300	소 래
10103	"	20kg	40,000		40506	호박엿 (사탕)	300g	1,000	울 통 도
10104	무 농 약 현 미	10kg	20,000		40507	" (덩이리)	500g	2,000	"
10201	"	20kg	40,000		40508	해 물 다 시	150g	1,900	소 래
10301	일 반 미	8kg	12,000		40509	참 외 장 아 찌		1,500	
10412	무농약떡미참쌀	4kg	10,500		50102	떡 볶 이	850g	2,000	생 협
10413	무농약떡미참쌀	"	10,500		50204	당근빵 (무래빵)		2,000	의 정 부
10402	보 리	1kg	1,300		50206	호 박 떡	900g	3,000	
10403	점 정 콩	"	2,500		50303	딸 기 잼	1,200g	9,000	민 우 회
10404	서 리 태	"	2,500		50401	아 카 시 아 꿀	1되	30,000	거 창
10405	현 리 콩	"	1,400	과 산	50402	야 채 효 소	1되	18,000	
10406	참 콩	"	9,900		50501	보 리 차	600g	1,000	보 은
10408	수 수	"	2,300		50502	참 차	300g	1,600	거 창
10409	팔 수	"	2,800		50503	두 충 차	100g	800	함 양
10410	기 장 조	"	2,700		50504	감 잎 차	200g	6,000	광 주
10414	차 조	"	2,700		50507	옥 수 수 차		1,000	
10501	통 밀 가 루	"	1,600	창 원	50508	들 깨 가 루 스	200g	1,800	보 은
10502	백 밀 가 루	"	1,700		50801	포 도 주 스	1병	3,500	금 룡
10503	국 수	600g	1,500		50901	미 식 가 루	1kg	5,200	햇 님 방
20101	두 부	1모	750	홍 성	50902	오 정 어	10마리	10,000	울 통 도
20102	콩 나 물	400g	500		60103	상 치	"	500	
20103	유 정 란	1판	3,600		60209	얼 갈 이	"	1,000	
20104	도 라 지	400g	1,300		60210	시 금 치	300g	650	
20105	봉 도 라 지	400g	1,300		60307	홍성저장마늘	1집	12,000	
20106	유 정 란	10알	1,200		70102	소 불 고 기	600g	11,000	씨 알 축 산
30102	된 장	2kg	6,000	홍 민 우 회	70103	소 장 조 립	"	11,000	"
30202	고 추 장	1kg	6,000		70104	소 갈 비	1kg	14,000	"
30302	팔 조 청	1,200g	7,000		70105	소 도 가 니	600g	5,500	"
30501	참 기 림	340ml	8,900	보 은	70110	소 양 지	"	11,000	
30502	들 기 림	"	4,300		70111	소 사 태	"	11,000	
30503	고 추 씨 기 림	320ml	3,500		70114	소 등 심	"	12,000	
30601	죽 염 (1 회)	500g	5,000	미리 주문하면 한	70201	통 닭	1.2-1.3kg	4,400	
30603	죽 염 (9 회)	125g	20,000		70202	삼 계 탕 닭	2마리	6,400	
30701	무농약건고추	1근	6,500		70203	토 막 닭	1.2-1.3kg	4,400	
30702	고 추 가 루	1kg	17,000		70301	돼 지 불 고 기	600g	3,900	
30801	멸 치 액 찌	10kg	13,000		70302	돼 지 장 조 립	"	3,900	
30802	멸 치 육 찌	10kg	12,000		70303	돼 지 돈 까 스	"	3,900	
30803	새 우 찌	5kg	13,000		70304	돼 지 고 기 간 찌	"	3,900	
30901	류 은 깨	150g	2,200		70305	돼 지 삼 겹 살	"	4,300	
40111	도 토 리 목	330g	1,000	소 래	80112	사 과 (부 사)	5kg	9,000	홍 성
40112	청 포 목	330g	1,000		90101	무른생 (주방용)	500g	1,800	한 국 소 유 지
40201	들깨송이부각	100g	2,500		90102	수입식품 (책)	1권	2,500	
40202	우 영 잎 부 각	100g	1,700		90103	새미알 (목유 · 머리)	100g	3,000	한 국 소 유 지
40203	들깨잎부각	100g	1,700		90104	생명의농생명의의	1권	3,500	한국유기농업고급회
40207	감 자 부 각	100g	1,700		90105	화 장 지	70m×10개	3,000	소 협 중 앙 회
40208	김 부 각	100g	1,700		90107	바 구 니	1개	5,000	
40304	미 역	200g	1,800		90108	천연채채전물세트		10,000	
40402	료 고	"	4,500			햄	500g	7,000	방부제와 방색
40501	울 외 장 아 찌	1kg	6,800			소 세 지	500g	6,000	제 안 넣은 것임

민우회의 여성권익투쟁 많은 성과 올려

지난해부터 민우회가 지원한 사무직 여성 권익투쟁이 올해 많은 성과를 낳았다. 회사측에 항의문 발송, 공청회 개최, 변호사 선임, 언론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싸워 얻은 승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의지를 심어주리라 생각되어 투쟁 결과를 소개한다.

• 연대 여성용원 임시직 정규직 발령 및 차별임금 해결

연대 임시직 여성용원 남길자, 윤복순 씨는 지난해 5월 학교를 상대로 남녀 고용평등법 6조2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걸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년간 임시직 신분으로 일했으며 같은 일을 하는 남성용원 임금의 1/4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학교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면서 언론홍보, 학내 여론화 등을 통해 여성용원 3명 정규직발령, 여성 임시직 임금의 250% 상승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최초의 법적 투쟁으로, 타대학 임시직 용원여성들의 부당대우를 해결하는데 큰 모범이 되고 있다.

• 두산산업 문정숙-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 승소

지난해 7월 두산산업 문정숙(10년근무) 씨는 차별임금에 항의한 여직원 공동월차 사용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고졸학력 남녀의 초임격차는 80%, 10년후에는 60%로 임금차별은 모든 여직원의 불만이었고, 집단월차는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의 표현이었다. 민우회는 황산성 변호사를 선임해 해고무효 소송을 지원하였다. 1년간 언론홍보, 공청회, 노동조합의 대책 등을 통해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하였다. 회사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 중앙대 조무직-28세 정년 철폐

중앙대는 최근까지 조무직은 28세 정년이었다. 지난 8월로 정년에 걸린 4명(미혼 2명, 기혼 2명)은 학교측에 이의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민우회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 노동부와 정부제2장관실에 차별정년 해결 진정서 제출,

중앙대 학내 서명운동, 출근투쟁, 언론사 홍보 그리고 동료 조무직들의 지지를 받으며 싸운 결과 여성 28세 정년은 남녀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답변을 얻어냈다. 2개월간의 계속된 싸움끝에 현재는 4명이 각각 원직발령을 받았다.

• KAL 황인희-결혼후 부당인사 발령 철폐

KAL에서 7년간 근무한 황인희씨는 결혼후 퇴직압력 및 축박제 제안을 거절한 후 제주도로 발령받았다. 임신중인 상태에서 제주에서 근무, 별거부부 상태로 10여개월을 견디었다. 육아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회사측은 원직복귀하라는 했으나 민우회는 즉각 주거지 발령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 주거지인 인천으로 최근에 발령을 받았다. 황인희씨 사건은 대그룹사 여직원의 결혼퇴직 철폐, 육아휴직을 앞서서 이뤄낸 사례이다. *

민우회 살림 밀천 유자차 사업이 시작됩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동안 민우회 사무실에서 유자차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북한여성, 서울 초청 수락

지난 5월 일본에서 일했던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심포지움에 참가했던 남한측 여성(대표: 이효재, 이우정, 윤정옥)들은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 중순 서울세미나에 대한 초청과 이를 위한 예비접촉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북한측은 10월 19일자 서신을 통해 서울 세미나 초청을 수락함과 함께 예비접촉회담을 10월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남한 정부는 접촉일시가 촉박하다는 점과 한국측 정부의 관례상 민간인 차원의 예비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비접촉을 적십자 판문점 연락관에게 위임한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서신왕래 만으로는 정확한 의사전달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직접 예비회담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1월 2일(토) 통일원관계자와의 면담 직후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예비회담을 이효재, 이우정, 윤정옥의 실행위원회 대표 3인이 직접 할것과 일정 및 세미나 내용 등은 예비회담에서 결정할 것 등이다. *

김지나웨딩컬렉션

두·분·의
소·중·한·날·을
다·욱
값·지·고·아·름·답·게
빛·내·기·위·하·여
어·머·니·의·마·음·으·로
한·울·한·울·정·성·을
다·하·고·있·습·니·다

웨딩·약혼·예복·인주복·파티복
부케·미용·사진·패션

디자이너 서울특별시 중구 영동2가 53-14
한자B/D 202(POLO아파트 2층)
김 지 나 Tel. 02-779-2241

